

메시지 3
밀과 보리의 땅

성경: 신 8:8상, 요 11:25, 12:24-25, 고전 15:20, 엡 1:20

I. 신명기 8장 8절 상반절에 나오는 밀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— 요 12:24.

A. 그리스도는 그분의 충만한 사역의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끄셨다 — 요 1:1, 14.

1.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유한한 사람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으셨다 — 요 7:6, 10.

a. 주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지만, 시간에 제한받으시며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사셨다 — 요 7:6.

b.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, 사람으로서 박해를 받으셨고 행동하실 때에 제한받으셨다 — 요 7:10.

2.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유한한 사람으로서 지식에 있어서 제한받으셨다 — 마 24:36, 눅 2:40, 52, 비교 요 7:15, 막 6:1-3.

3.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유한한 사람으로서 타고난 인간 생명을 가지셨고 의존하는 삶을 사셨다 — 요 10:11, 15, 17, 6:57상, 마 14:19.

B. 그리스도께서 육체 되심으로 얻으신 인성은 그분의 신성을 감춤으로 그분의 영광을 감추는 일종의 껍질이 되었다 — 요 1:14, 12:23-24, 눅 12:50.

1. 주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인성의 껍질에 의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시고 억압받으셨으며, 그분의 신성의 영광을 해방하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침례로 침례 받기를 열망하셨다 — 눅 12:50.

2. 주님은 신성한 생명을 지니신, 무한하시고 한량없으신 그분의 신성한 존재가 그분의 육체에서 해방되시기 위해 육체의 죽음을 겪으셔야 했다.

3. 주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, 그 죽음은 그분을 그분의 인간 껍질에서 해방했다 — 요 12:24.

a. 그분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, 그분의 신성한 요소 곧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그분의 인성의 껍질 속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.

b. 한 알의 밀로서 땅에 떨어지신 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혼생명을 잃어버리심으로써 자신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다.

C. 우리를 제한하고 억누르는 상황들에서도 우리는 한 알의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 — 요 12:24.

1. 우리가 주님의 주권으로 제한받는 상황 곧 억누리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, 우리는 밀이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— 롬 8:28.

2. 우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환경에서 주님을 접촉할 때, 우리는 그분께서 유한한 사람이 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 안에 어떤 종류의 제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— 빌 4:13.

3.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한 알의 밀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, 육체 되신 분 곧 제한받으신 분의 생명을 사신다 — 골 1:27, 3:4.

4. 우리가 주님을 접촉한다면, 우리는 한 알의 밀이신 그분을 체험할 것이고,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상황에 만족할 것이다 — 빌 4:11-12.
5. 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기꺼이 제한받고 기꺼이 죽고 기꺼이 장사되고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신다. 이것이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다 — 요 12:24-25.

II. 밀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,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— 신 8:8상.

- A. 좋은 땅에서 보리는 다른 어떤 곡식보다도 더 일찍 익는다. 그러므로 보리는 첫 열매이다 — 고전 15:20.
 1. 보리는 일찍 익기 때문에 수확의 첫 열매로서, 부활하시고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— 고전 15:20.
 2.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보리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배우고, 그분께서 모든 상황에 대처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기쁘다.
 3.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 되시어 몸의 머리가 되셨다(골 1:18, 엡 1:20-23). 몸의 머리이신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, 몸인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.
 4.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셨다. 따라서 보리떡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— 요 6:48.
 - a. 숫자 5는 책임을 의미한다.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.
 - b. 우리가 보리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, 우리는 보리떡이 되어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먹일 수 있다.
 5. 주 예수님은 다섯 개의 보리떡으로 오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으며,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. 이것이 부활이다 — 마 14:14-21, 요 6:9, 13.
- B. 보리로 예표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무한하시다 — 빌 4:13.
 1. 밀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죽음과 장사를 가리키고, 다음에 나오는 보리는 그분의 부활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— 요 11:25, 엡 1:20.
 2. 한 면에서 우리는 밀로 상징되는 제한받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고, 다른 면에서는 보리로 상징되는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 — 요 12:24, 6:9, 13.
 - a. 육체 되심 안에서 예수님은 극도로 제한받으셨지만, 부활 안에서 그분은 무한하시다 — 눅 12:49-50, 24:5-6, 26, 34, 46.
 - b. 밀은 죽음의 골짜기이지만, 보리는 부활의 산이다.
 3. 밀 곧 제한받으신 예수님을 체험하려면, 우리는 보리 곧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한다. 우리는 제한받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따른다 — 히 13:12-13.
 4.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, 이는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무한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— 빌 4:13.
 5. 우리는 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마다 보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뒤따를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— 신 8:8상.
 6. 사실상 밀알이신 그리스도 곧 제한받으신 예수님을 체험하려면, 보리이신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— 요 12:24-25.

7.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지만, 우리 안에 있는 보리떡, 곧 무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한 몫이 모든 필요를 채우고 심지어 여분을 산출할 수 있다 — 요 11:25.
8.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보리떡이시다. 어떤 것도 그분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.
9.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보리이심을 기억한다면, 집회에 올 때 우리는 기도나 간증을 통해 보리이신 그분을 적용함으로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다.